

담양군 SRF 환경 분쟁 '점입가경'

<고형폐기물>

담양의 유명 제지공장 운영을 둘러싼 환경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고형폐기물(SRF) 사용 승인을 놓고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업체 측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자 지리단체가 곧바로 "국유지 무단사용"으로 맞고발하는 등 맞불 놓기식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고, 주민들은 "더 이상 못 참아 공장 폐쇄"며 공장 폐쇄·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담양군과 제지회사인 한솔페이퍼텍에 따르면 회사측은 최근 최형식 담양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관할 담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전체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100%로 확대하겠다'는 요구를 담양군이 거부한 데 반발해 회사측이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20여 차례에 걸쳐 현장 행정점검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보복 행정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군이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도 행정심판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입장이다.

담양군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불법 야적행위에 대해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영산강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영산강 홍수통제소에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엔 국유지를 무단사용했다며 경찰에 회사 대표 등을 고발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3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노골화됐다.

담양군이 주민 행복추진권과 쾌적한 환경권을 이유로 SRF 확대 사용 불승인 처분을 내린데 대해 지난 3월 도 행정위가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주자 업체 측이 이같은 결정을 내세워 군을 상대로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행정위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잠재적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양측의 갈등이 마주보고 돌진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는 가운데 수 십년 간 환경오염에 노출돼 온 주민들이 참다 못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을 아예 폐쇄하라'며 청원과 서명운동, 거리시위에 나서고 있다.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연대' 소속 주민들은 전남 담양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악취와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주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위는 지난 3월 대전고법

"직권남용 vs 국유지 무단사용" 고발 맞불

주민들 "더 이상 못 참아 공장 폐쇄" 주장

판결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환경권도 무시한 채 현 정부의 생태환경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공장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인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은 1983년 설립된 양형제지를 시작으로, 두립제지, 대한페이퍼텍을 거쳐 현재에 이

르고 있다. 연매출은 1000억원 안팎에 이른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인접해 대지면적 전체 주민 450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대치리 8개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대기질 오염 등을 호소하며 수년째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한복 입고 궁궐로 19일 오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줄을 맞춰 경복궁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100원 택시'는 되고 '1000원 여객선'은 왜 안 되나?

신안군 법적근거 없고 예산 없는 준비부족

최근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하려던 '1000원 여객선' 구상이 좌초되면서 논란이 점입가경 양상이다.

'급기야 '100원 택시'는 되고 '1000원 여객선'은 안되냐'는 불벤 소리로 나오고 있다.

'신안 1000원 여객선'에 선거법 위반 소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던 선거관리위원회도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도 역력하다.

결론적으로 100원 택시는 가능하지만, '신안 1000원 여객선'이 안되는 이유가 있다.

100원 택시는 조례를 만들고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등 오지시간 벽지인들의 교통복지 일환으로 타당성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충남 서천군이 '희망택시(1000원 택시)'로 스타트를 끊은 뒤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전남지역으로 확대해 지금은 전국화됐다.

앞서 지난 2012년 충남 아산시는 100원 택시인 마중택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나 조례제정 등 법적 근

거가 없어 '선거법 위반 소지' 끝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 1000원 여객선'은 아산시 마중택시와 비슷한 양상처럼 보이지만, 세밀하게 보면 또 다르다.

'신안 1000원 여객선'은 조례 규정도 없고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고 대상도 광범위하다.

일단 100원 택시는 농어촌 오지의 교통복지차원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신안은 축제기간인 지난 14~16일까지 자은~중도 항로에서 배를 타는 도시민은 물론, 모든 관광객에게 배삯 할인을 계획했다.

여객 배삯은 3600원에서 1000원, 승용차삯은 2만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

신관위의 답변은 복잡하지 않았다. 현재 자은~중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신안군 소유로 농협이 임대해 운항을 하고 있는데, 신관위는 "해당 농협이 배삯 할인 예산을 미리 세워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명목이 아닌 조합장이나 자치단체장 명의를 추경계 하면 안된다"

면서 "이를 어길 경우 가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했다.

여객선 운항사인 농협에 배삯 할인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안군은 "1000원 여객선" 행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뒤늦게 "앞으로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도 추경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프닝으로 끝난 '신안 1000원 여객선'은 전남도가 교통복지차원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는 '1000원 여객선'과도 다르다. '무너진 1000원'으로 갈을 뻔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축제기간 일시적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배삯을 할인해주는 '신안 1000원 여객선'은 교통복지차원에서 추진되는 도의 '1000원 여객선'과 결이 다르다"면서 "전국적으로 섬지역을 긴 지자체와 연대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1000원 여객선'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국비가 100억~150억원 정도가 추가 될 것으로 전남도는 추산했다.

김정환 기자

보성서 오토바이·승용차 충돌...2명 숨져

19일 오전 11시24분께 보성군 조성면 한 도로에서 A(84)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B(48·여)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 C(81)씨가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장에 친구 유흥업소 취직시키려 한 일당 검거

지적장애인 친구를 유인해 유흥업소에 취직시키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19일 친구를 유흥업소에 소개시켜주고 수백만원의 선불금을 가로챈 한 혐의(영리유인 등)로 A(23·여)씨와 운전한 한 B(21)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8시경 경기도 평택의 한 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3·여)씨를 만나 승용차를 이용해 목포까지 데려와 유흥업소에 취직시켜 주고 선불금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일행과 C씨는 소년원 등에서 만나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C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해 "바다를 보여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C씨를 평택에서 차량에 태운 뒤 목포까지 운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소개를 받은 유흥업소 사장이 채용을 거부하면서 틀똥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 18일 오후 2시에 호남고속도로 정읍불계이트에서 용의차량을 발견한 뒤 이들을 붙잡았다.

가출 청소년에 금은방털이 시킨 10대 검거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가출한 청소년에게 금은방을 털도록 시킨 혐의(절도교사)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지시를 받아 금은방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B(13)군도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8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동구 한 금은방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귀금속을 훔치도록 지시한 혐의다.

B군은 A군의 지시에 따라 몰로 금은방 외벽 유리를 부수고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전남 밥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기 수원 자택에서 최근 가출한 B군을 광주로 불러 하룻밤을 함께 지내며 '금은방을 털어 훔친 귀금속은 내가 직접 처분해 수익을 나누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과 함께 택시에 탑승, 범행 대상으로 노렸던 금은방 앞에서 B군을 내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군은 몰로 금은방 강화유리를 수차례 내리쳤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군은 출동한 사설경비업체에 의해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B군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자택에 있던 A군을 검거했다.

10대가 차량 몰다 광주천 추락...5명 경상

10대 초보 운전자가 차량을 몰다가 광주천변에 추락해 5명이 다쳤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55분께 광주 서구 양동 발산교와 양동교 사이 천변좌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A(18)군이 몰던 승용차가 난간을 뛰어받은 뒤 2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A군과 또래 친구 등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8개월 전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할머니 소유의 차량을 몰고 나왔으며, 서부면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았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